

박 영 근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분절된 자아의 내적 갈등이 반영된

자화상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2012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판화학과

윤 경 숙

분절된 자아의 내적 갈등이 반영된
자화상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박영근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판화학과

윤 경 숙

인 준 서

윤경숙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김 용 식 인

심사위원 임 상 빈 인

심사위원 박 성 태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12년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린 본인의 개인전을 바탕으로 인간의 욕망과 타자와의 관계를 주제로 한 작품들의 이론적 내용 및 표현을 분석하여 서술하였다.

본인에게 있어서 작업은 나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욕망과 그 욕망이 만들어내는 내적 갈등을 통해 자아의 정체성을 사유함에 따라 나와 타자를 비롯한 환경들이 만들어내는 개인의 심리적 상황을 조형적으로 전개시키는 것이다.

본인의 작품의 첫 시작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얻어진 깨달음이며 이를 바탕으로 전개하였으므로 먼저 작업의 동기를 밝히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예술은 우리 삶의 표현이며 예술을 보면 개인의 삶을 엿볼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시대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요, 소설, 영화 등에서 표현된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 타인으로 하여금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타자와 관계를 맺으며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 본인은 타자와 나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 욕망으로 인한 갈등과 불안한 심리적 상태를 작업으로 해소 하고자 했다. 특히 친밀한 관계인 이성친구와 가족의 해체에서 오는 불안감이 본인에게 미친 영향들은 작업의 동기가 되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 속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타자의 평가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느낌을 확신한다. 타자에게 인정받고자 했던 욕망과 인정받기 위해 타자의 견해를 본인의 견해로 받아들이고 이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서 오는 갈등과 정체성의 혼란이 만들어낸

억압되고 불안한 심리적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곧 본인의 작품은 자화상이라 할 수 있겠다.

예술가가 자화상을 그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신을 상태를 되돌아보고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의식(自意識)표출의 장이기 때문이다.

본인의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얼굴이 없는 인체표현은 사회적 지위나 성격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불특정한 인물의 순수한 본연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몸은 자아의 비유적 기호로 신체를 절단 혹은 가리는 방법으로 억압된 자아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다. 타자에 의해 생겨난 욕망과 갈등으로 오는 정체성의 혼란과 분열된 자아의 모습을 분절된 누드 이미지로 형상화 했다.

현대 삶에서 타자의 시선이 주는 영향으로 생겨난 욕망의 결과를 상징하는 매체로 날개와 춤 이미지를 사용하여 신체와 함께 결합해서 갈등하고 불안해 하는 자아의 모습을 보여 주고자 했다. 처음 자화상에 나타났던 입자들을 날개의 형태로 만들어내고 이를 불완전한 신체와 결합함으로써 헛된 소망이 만들어내는 억압된 자아를 표현했다. 날개는 신체의 일부이며 머리카락과 손톱과 같은 육신의 연장이다. 욕망이 만들어낸 거짓 된 날개가 신체에서 돌아난 이미지를 통해 내면에 점점 쌓이는 불안감과 갈등을 표현했다. 또한 인생을 춤에 비유하여 인체를 구체관절인형의 형식으로 신체를 절단하고 재조합해서 인위적으로 동작을 만들어내어 억지로 추는 춤, 어색한 동작을 표현하여 억압된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체성의 혼란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로 인한 결과 표현이다.

본인에게 작업은 본인의 심리적 상태를 말함으로 해소 하고자 하는 치유적

욕구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한 감정과 두려움을
자화상으로 나타내어 혼란스러운 자아의 원인을 파악하고 정체성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5
1. 내용적 측면	5
1) 분절된 자아	5
2) 타자가 만들어낸 욕망의 상징으로서의 날개	8
3) 삶과 억압된 몸짓의 상징으로서의 춤	10
2. 조형적 측면.....	13
1) 자아정체성의 발현으로서 누드 실루엣	13
2) 욕망의 표현을 위한 선묘	16
3) 가변적 구성	18
3. 작품 분석	21

작품사진

III. 결론	39
---------------	----

참고도판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1] 자화상	25
[작품2] 자화상	26
[작품3] Wings	27
[작품4] Wings	28
[작품5] Wings	29
[작품6] Midnight	30
[작품7] Midnight	31
[작품8] Midnight	32
[작품9] dance to music	33
[작품10] dance to music	34
[작품11] dance to music	35
[작품12] dance to music	36
[작품13] 춤	37
[작품14] 춤	38

도 판 목 차

[도판1] Hans Bellmer, The doll	41
[도판2] Henri Matisse, Icaros.....	42
[도판3] Pieter Bruegel, Landscape with the Fall of Icarus.....	43
[도판4] Rebecca Horn, The Feathered Prison Fan	44
[도판5] Francis Bacon, Self-Portrait.....	45
[도판6] Henri Matisse, Dance II	46
[도판7] Kara Walker, Durkytown Rebellion	47

I. 서론

예술활동은 작가의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는 한 매개체로 작가의 삶과 생각을 표현하는 자전적 활동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서 시작하지만 이 시작이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 공감을 이뤄내는 것은 예술은 개인의 내면의 표현이지만 결국 그 시대를 표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인의 내면세계를 거론할 때 타자와의 관계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큰 문제이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나와 나 외의 환경이 상호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봉건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평등(平等)사회로 규정되어 왔다. 사전적 의미로 평등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고르고 한결같은 상태를 말한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가치아래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한다. 자신을 끊임 없이 비교함으로써 내가 지금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 판단하는 것이다. 알랭 드 보통은 그의 저서 불안에서 타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과 스스로의 평가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낯 때부터 자신의 가치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괴로워할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느낌은 함께 사는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된다. 그 사람들이 우리 농담에 즐거워하면, 우리는 나에게 남을 즐겁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자신을 갖게 된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면, 나에게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방에 들어갔을 때 눈길을 피하거나 직업을 밝혔을 때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수도 있다.¹⁾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타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그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욕망이 있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가치관을 타자의 가치관에 맞추려 한다. 특히 자신의 정체성에 확신이 없고 정체성을 타자에게서 찾고자 하는 사람일 수록 그 욕망은 크다. 타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자신이 타자와 비교하여 성공에 가까운 길에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 것으로 인해 타인보다 나은 삶 또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시기에 들어오면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일들은 큰 부담감으로 온다. 특히 이 시기 확고한 신념 없이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된다면 외부의 시선과 본인의 욕망으로부터 중압감에 시달리게 된다. 본인의 청년시기는 정체성의 혼란과 미래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체성이 많이 약해 있던 상태였다.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타자의 의견에 많이 흔들리고 내 의견을 굽혀 타자의 의견을 따랐다.

이 시기에 만난 이성친구는 현대사회의 흐름에 맞춰 손꼽히는 4년제 좋은 학교를 졸업해서 대기업 혹은 복지와 연봉이 좋은 기업이나 국가고시에

1) 알랭 드 보통, 『불안』, 정영목(역), 서울: 이레, 2005, p.21

합격하여 직장생활을 해서 돈을 모으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몇 평이상의 아파트에 살면서 맞벌이를 하고 자녀를 둘 정도 키우는 것을 진리라 믿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본인에게 강요하고 맞추려 했다. 본인도 어느새 그 것이 옳다고 동화되었고 스스로를 그의 기준에 맞추려 노력하였다.

또한 이성친구는 가족을 제외한 가장 친밀한 관계로 항상 '내편'이 되어 줄거라 기대한다. 본인은 이성친구에게 많이 의지하는 편이다. 이는 부모님의 관계가 좋지 않고 결국 가족의 해체라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오면서 가족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과 가족이 아닌 '내편'을 옆에 꼭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만들어 낸 것이다. '내편'이 나를 떠날 거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그의 견해에 나를 맞추고 인정받고자 했다. 이성친구에게 인정 받음으로 '내편'이 항상 내 곁에 있어 줄거라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은 오히려 누굴 위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게 만들었고 정체성이 혼란스러웠다. 그러는 동안 그는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본인을 떠났으며 그가 떠난 후 정체성의 혼란은 심각해졌다. 그 시기에 삶의 기준은 그의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라지면서 인생에 기준이 없어진 것이다.

정체성의 혼란은 또 다른 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인간은 타자의 평가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느낌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가 아닌 타인에게서 그 기준을 찾는다. 결국 또 다른 타인에게 의지하면서 그가 생각하는 기준을 또 자신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과 이 전과 다른 욕망을 만들어냈지만 반복적으로 타인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받아들이고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킴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삶 속에서 욕망-평가-갈등 이 세가지는 계속 반복되어 인간의 삶을

불안하게 만든다.

본인은 주체를 잃은 정체성과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자화상을 그리는 것으로 작업을 시작했으며 이는 미술이 단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기능적면 뿐만 아니라 미술을 통해 심리적 갈등을 완화시켜주는 치료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자화상은 화가 자신의 모습에 대한 표현뿐 아니라, 작가의 내면 표출의 장(場)이자, 자기 인식의 방법이며, 자기애, 자부심, 자조(自嘲), 자기 연민(自己憐憫)을 발현하는 수단이며 조형적 실험의 미edium으로 쓰였다. 자기 시대의 한계 속에서 '자기'를 파악하고 자화상 속에 자신을 형상화하였다. 즉 자화상은 화가의 모습을 보여 주고 그들의 조형적 양식사의 특성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화가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의식(自意識)표출의 장르이다.²⁾

본인은 인간의 불안한 감정이 정체성이 혼란한 시기에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결과로 보고 이 결과가 본인의 자화상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타자와 나와와의 관계에서 얻는 욕망과 그 욕망의 결과가 자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내적 갈등이 분절된 자아의 모습으로 신체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서술한다. 작품의 소재인 날개와 춤의 상징과 그 조형적 특성을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각 작품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2) 조선미, 『화가와 자화상』, 서울: 예경, 1995, pp.321-322

II. 본 론

1. 내용적 측면

1) 분절된 자아

인간은 현실의 삶에 안주하기 보다는 늘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추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 이러한 인간의 욕망은 타자에게 인정받음으로 충족 된다. 타인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은 결국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스스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저서 인생론에서 남의 견해나 생각의 노예가 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약하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남의 견해에 대한 감수성의 예민함을 억제하지 못 하면 남의 견해나 생각의 노예가 되어 꼼짝 못하게 되는 것이다.³⁾

인간은 타자의 견해에 쉽게 노출되어있다. 직접적인 타자와의 만남과 대화에서 뿐만 아니라 매스미디어의 발전으로 TV, 라디오, 인터넷기사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자의 견해가 유입된다. 또한 소셜네트워크의 발전과 유행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되었다. 이는 반대로 타자의 견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신감이 상실되고 정체성이 약한 상태의 사람은 옳고 그름에 판단이 서들기 때문에 금방 타자의 견해에 노예가

³⁾ A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 인생론』, 사순옥(역), 서울: 홍신문화사, 1987, pp.50-51

되며 그것이 정당하고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견해인 것처럼 따르게 된다. 하지만 곧 스스로 무엇이 옳은 가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며 그 질문들은 혼란을 만든다. 또한 결과적으로 타자에게 인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욕망은 완벽히 해소 되지 못 한다.

왜 욕망은 완벽히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는가? 욕망이 간단히 충족되지 않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기대했던 완벽한 충족이 고정됨, 답답함, 지루함, 아파니스스⁴⁾를 낳는 이면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욕망이 결핍의 표현으로서 다시 나타나기 때문이다.⁵⁾

본인은 나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또래친구나 이성친구의 삶과 그들의 의견에 나를 비교하면서 조급한 마음이 생겼다. 그들이 말하는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 안정된 직장을 가졌지만 오히려 그 삶은 내 안에서 찾은 것이 아닌 타인에게서 찾은 삶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허무하게 느껴짐으로 또 다른 갈등을 하게 되고 무기력해졌다. 즉 타자에게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은 짧은 시간 동안에만 누리게 될 뿐 곧 갈등하게 됨으로써 욕망과 타자에게 인정받고자 함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정체성의 혼란은 유지된다. 이러한 갈등과 혼란은 분절된 자아의 모습으로 작품에 나타냈다.

본인의 작품에서 인간의 인체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없다. 머리만 있는 자화상 혹은 머리카락이나 신체의 부분이 없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더 나아가 구체관절인형의 모습처럼 신체의 각 부분을 잘라내어 재조합한 이미지를 만들어

⁴⁾ 아파니스스(aphanisis)는 사라짐이라는 용어로 존스(Ernest Jones)가 고안한 말이다. 그는 그것을 상당히 부조리한 것, 즉 욕망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파악했다.(자크 라캉, 『자크 라캉 세미나 11권 -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 개념』, 맹정현, 이수련(역), 서울: 새물결, 2008, p.314)

⁵⁾ 페터 비트머, 『욕망의 전복: 자크 라캉 또는 제2의 정신분석학 혁명』, 홍준기, 이승미(역),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8, p.95

내었다.

한스 벨머는 1930년대에 인형을 만들었다. 이를 소재로 강박적 욕망을 담은 사진들을 만들어 냈다. 그 인형을 통해 성의 차이, 성과 관련된 근본 환상 내지 트라우마틱한 사건을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구체관절인형의 형식으로 욕망의 이동을 신체를 재조합하여 표현 했으며 불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신체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해부했다. 절단된 신체로 변형되는 이미지는 화가 자신의 신체를 절단하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또한 시체가 부분부분 부패되면서 형태를 바꾸어나가듯이 부분부분 형태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며 이는 실체 없는 유명과 같이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이행하는 것이다. 벨머의 <인형>의 특징은 바로 이런 변형이다. <인형>은 시체며, 조각난 신체고, 주체성이 사라지고 난 이후의 신체이자 동시에 주체성의 생기기 이전의 신체이다.⁶⁾

[도판1]

본인도 신체를 절단 혹은 가리는 방법으로 억압된 자아의 모습을 보여 주체성이 사라진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다. 인간의 몸은 자아의 비유적 기호이다. 관능적 자연성, 종교적으로 이상화(이데올로기화)된 영혼, 형이상학적으로 관념화 된 자기 동일적 자아, 혹은 성적 리비도와 연관된 무의식 등 정신사적 지층의 변화와 더불어 다양하게 해석 되면서 인간의 자아 찾기 작업에 연동적인 기능을 해왔다. 모든 시대적 담론의 중심 축은 인간의 몸을 주체화한 자아의 규정, 즉 인간 자신의 의미론적 독해 활동에 함께 연결되어 있다.⁷⁾ 본인의 작품에서 신체는 자아를 표현하기 위한 대상이다. 대상을 분절하는 것은 곧 해체이며 대상의 해체는 자아를 스스로 해체하여 탐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⁶⁾ 할 포스터, 『욕망, 죽음 그리고 아름다움』, 전영백, 현대미술 연구팀(역), 서울: 아트북스, 2005, p.177

⁷⁾ 김정현, 『니체의 몸 철학』, 서울: 지성의 샘, 1995, p.8

본인은 자아를 스스로 해체하거나 재조합하여 자아가 분열되면서 얻어지는 주체성의 상실과 심리적 불안감을 탐구하고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2) 타자가 만들어낸 욕망의 상징으로써의 날개

인간은 옛날부터 날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 날고자 함은 물리적으로 보다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함 또는 사회적 위치의 상승, 탈출, 자유로움, 존재의 가벼움 등으로 상징되어 왔다. 본인에게서 날개는 날지 못하는 인간이 날고자 하는 욕심을 바탕으로 한 헛된 소망에 대한 상징으로서의 날개이다.

신화에 등장하는 이카루스의 날개는 하늘의 날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의 상징으로 많은 예술가들로부터 재현되어 왔으며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앙리 마티스는 재즈시리즈 중 <이카루스>[도판2]를 통해 추락하는 비행사 수가 급증하던 배경을 주제에 담아 이카루스의 뿌려진 날개 형상을 섬광처럼 주변에 배치시킴으로 항공기 폭격에 대한 반대의 뜻으로 사용했다. 소박하고 우직한 농민을 주로 그린 피터 브뤼겔은 <추락하는 이카루스가 있는 풍경>[도판3]에서 이카루스를 구석에 작게 그리고 농부나 어부는 일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표현하여 개인의 사건이 타자에게는 무관하다는 것을 풍자하고자 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미노스왕이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루스를 궁에 가두자, 다이달로스는 이카루스의 팔에 밀랍으로 깃털을 붙여 날개를 만든다. 그리고 하늘을 날게 해 탈출을 시도하지만 이카루스는 나는 기쁨에 들떠

아버지의 당부를 잊고 태양에 너무 가까이 접근한 나머지 밀랍이 녹아내려 땅에 떨어져 죽고 만다.

본인작품의 날개는 욕망에 이끌려 녹아버린 이카루스의 날개처럼 인간의 욕망에 대한 비극을 담아낸 것으로 헛된 소망⁸⁾의 상징으로 표현되었으며 현대 삶에서 타자의 시선이 주는 영향으로 생겨난 욕망의 결과물이다. 앞서 서론에서 작업동기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성친구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그의 기준에 본인을 맞추고자 노력하였으나 본인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갈등하였고 오히려 안정된 그 삶은 답답하고 지루함을 주었다. 또한 본인의 자아를 억압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새에게 날개는 육체의 한 부분으로 가벼운 깃털로 이루어져 있다. 즉 인간에게서 날개는 육체 그 자체인 것으로 본인은 날개를 육체에서 뺀어 나오는 이미지 뿐만 아니라 신체 자체를 이용하여 표현되기도 했는데 설치작품인 <춤>[작품13]이 그 것이다. 무게를 버리고 오직 가벼움으로 하늘거리는 육체는 새의 깃털과 흡사하지만 결국 줄에 의지하여 흔들리는 형상일 뿐 날 수 없다. 즉 타자에 의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자아는 결코 심리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 질 수 없다. 레베카 호튼은 깃털을 머리카락이나 손톱과 같은 육신의 연장으로 보았다. 그의 작품 <깃털 달린 감옥 부채>[도판4]에서 억압의 표현으로 고급스러운 흰 공작새 깃털이 행위자 양쪽의 커다란 부채 틀에 붙어 사람을 덮어버리는 설치 미술을 보인 바 있다. 깃털 아주 가벼운 존재 이지만 이것이 육체를 덮음으로 공포감을 준다. 본인 작품에서 날개는 깃털로 된 진짜 날개가 아닌 욕망의 입자들이 만들어낸 날개이다. 날개가 신체에 돌아나고

⁸⁾ 여기서 헛된 소망은 타자가 만든 기준에 나를 맞추기 위해 하는 노력과 목표다.

자라난 것은 근심과 욕망이 자라난 것이며 날개가 자아를 점차 덮어 버리는 것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불안한 심리 표현의 매개체이다. 날개가 자랄 수록 두려움도 커지는 것이다. 또한 한쪽 날개만 생겨나거나 비대칭으로 생겨난 날개는 도저히 날기 위해 만들어진 날개라 볼 수 없다. 날개는 허무와 공포의 표현이며 심리적 압박으로 부터 본인을 날 수 있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억압하는 요소로 사용되었다.

3) 삶과 억압된 몸짓의 상징으로써의 춤

우리는 인생을 흰 도화지, 마라톤, 항해 등 여러 가지 것에 비유한다. 그 중에서 본인은 춤에 인생을 비유한 것이 인상 깊게 다가왔다. 이는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타자와 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비유이기 때문이다. 앤 모로 린드버그의 수필 바다의 선물에 인간의 삶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무용가에 비유한 장면이 나온다.

우리는 같은 리듬에 맞춰 본능적으로 움직였으므로 가볍게 접촉하기만 하면 되는 무용가들처럼 하루를 보냈다.

훌륭한 인간관계란 무용과 같은 것으로 그것을 영위해 나가는 데는 무용과 마찬가지로 어떤 규칙이 필요하다. 두 사람은 서로 꼭 붙잡을 필요가 없다 모차르트의 대무곡처럼 복잡하긴 하면서도 경쾌하고 빠르고 자유롭게 같은 리듬에 맞추어 자신 있게 움직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꼭 잡으면 율동이 억제되고 끝없이 변모하는 아름다운 전개를 막아

움직임이 딱딱해지는 것이다. ... 완벽하게 박자에 맞추어 춤추는 사람은 결코 상대방이 내 자신의 '삶의 날개'를 부러뜨리지 않는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이런 무용의 기술을 익힐 수 있는가? 왜 그건 그렇게 어려운가?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주저하게 하고 망설이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공포감이다. 지나친 순간에 대한 향수에 매달리고 다가올 순간에 대한 탐욕에 잡아 채이는 공포감, 이것은 '삶의 날개'를 파괴해 버린다.⁹⁾

춤은 혼자 출 수도 함께 출 수도 있다. 혼자 추는 춤은 자유롭게 추어도 괜찮지만 함께 추는 춤은 다르다. 함께 추는 춤은 서로 규칙을 맞추어 춘다. 그 규칙을 배워가는 과정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감이 결여된 한 사람이 춤을 배울 때 한 동작 한 동작 배워 나가는 일이 어렵고 고단하며 빨리 늘지 않는다.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맛 보고 자신감이 회복되면 배우는 일에 속도가 붙는다. 또한 자신에게 맞지 않는 춤을 추는 것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과 같이 어색하며 특히 억지로 추는 춤은 즐겁지 않을 뿐더러 그 동작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준다. 즐거운 마음에서 추는 춤이 아름다운 동작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함께 추는 춤은 곧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사회의 규범과 통념을 배우고 행하는 과정 속에서 타자의 시선과 자아의 정체성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는 모습을 신체의 동작으로 표현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해학과 불편함을 주었다. 잘 추는 무용가들의 몸짓이 아닌 억지로 추는 춤, 어색한 동작을 표현함으로써 억압된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⁹⁾ A.M.린드버그, 『바다의 선물』, 신상웅(역), 서울: 범우사, 1976, pp.116-118

본인이 춤이라 부르는 어색한 동작은 앞서 언급한 대로 분절된 신체를 재조합해서 만든 변형이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까닭 모를 불쾌한 것을 발견하는 눈으로 현대의 전형을 풍자하고 인간의 모습이나 자세에서 나오는 혐오감을 그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했다. 베이컨의 회화의 특징은 인간의 형태이다. 인체는 절단되고 분할되었으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비틀려 있고 얼굴은 일그러진 채 부분적으로 삭제 되었다. 그가 보여준 뒤틀린 인물들은 현시대를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는 자화상[도판5]에서 한결같이 침대나 의자에 앉아 있는 고독하고 괴로움에 찬 인물의 모습을 그렸다. 그의 자화상들에 보이는 변형은 기묘한 생명력을 지니면서 상당히 강렬하게 나타나고 꿈틀거리는 곡선은 울동감 있게 내면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다. 베이컨의 자화상은 자신의 외관에 대한 재현적 묘사가 아니라 자신의 인간상을 다루는 특징을 남김없이 보여주며, 인간의 상황에 관한 쓰라린 염세감을 깊고도 격하게 집약하여 나타냈다.¹⁰⁾

본인의 자화상을 표현하기 위해 표현된 춤은 스스로가 보는 본인의 모습을 담기 위해 분절된 신체 이미지를 어색한 동작으로 변형하여 본인의 외관을 재현하고자 한 것이 아닌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으며 더 나아가 현대를 사는 이들의 욕망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을 때 오는 갈등과 불안한 심리상황의 반영이다. 즉 베이컨의 신체 변형과 울동감이 인간의 내면을 시각적으로 형상화 한 것처럼 본인의 내면의 모습을 춤 그 자체의 이미지로 형상화 한 것이다.

사회와 타자가 본인의 삶에 주는 영향으로 인해 본인이 겪게 된 혼란과 불안한 감정들 그리고 혹여 내가 타인보다 낙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와

10) 조선미, 『화가와 자화상』, 서울: 예경, 1995, pp.282-284

중압감을 춤으로 재현하고 그 것을 바라보는 타자에게 어색한 동작이
해학적으로 보임으로 내 삶이 어둡지 않다고 반박하고자 했다.

2. 조형적 측면

1) 자아정체성의 발현으로서 누드 실루엣

누드(nude)¹¹⁾ 이미지는 고대부터 계속해서 예술가로부터 작품의 소재로
이용되었다. 이는 누드는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인들이 창안한 예술 형식으로
누드가 예술의 주제가 아니라 예술의 한 형식이기 때문이다.¹²⁾ 본인은 누드를
단순히 육체만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는 한
수단으로서 사용하였으며 감정이입의 대상인 것이다.

본인 작품에서 여성의 인체가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데로
본인의 정체성의 확인하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자 자화상을 그린 것을
시작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그려냈기 때문이다.

11) 누드(nude)라는 단어는 알몸(naked)과 구별되어 사용 된다. 18세기 초기의
비평가들이 회화나 조각이 정당하게 제작되고 평가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알몸의
인체가 항상 예술의 중심 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예술적인 교양이 없는 섬나라
의 주민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 영어 어휘 속에 억지로 추가한 것이다. 이 단어가
마음에 투영하는 어렴풋한 이미지는, 움츠리고 무방비한 신체가 아니라 균형 잡히
고 건강하며 자신만만한 육체, 즉 재구성된 육체의 이미지이다. (케네스 클라크,
『누드의 미술사: 이상적인 형태에 대한 연구』, 이재호(역), 서울: 열화당, 2002,
p.15)

12) 케네스 클라크, 『누드의 미술사: 이상적인 형태에 대한 연구』, 이재호(역),
서울: 열화당, 2002, p.17

인체란 우리의 자신이며 우리가 우리들 자신에게 얘기하고 싶은 온갖 기억들을 불러 일으킨다.¹³⁾ 이러한 인체를 그려 그림 안에 우리 자신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담아내는 것이다.

인체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전체적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강조하기 위해 세밀한 묘사를 배제하고 면으로 표현했다. 앙리 마티스의 <춤>[도판6]에서 마티스는 후기에 갈 수록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만 점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 주제에 내제해 이는 모든 생생한 세부들을 삭제하고 단순화를 통해 예술의 기본적인 리듬을 보존하였다.¹⁴⁾

흑인 여성 예술가 카라 워커는 검은 실루엣의 형태를 통해 인종과 성의 문제를 풍자한 해학적인 작품을 선보인 작가이다.[도판7] 그녀의 인종차별과 성차별, 계급차별을 비판하는 작업은 어린 시절 미국 사회에서 백인들의 우월주의와 편견 속에서 겪은 차별을 경험하면서 얻은 깨달음이 바탕이 되었다. 그녀가 흑인으로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살아가지만 아직도 한편으로는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미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흑인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찾는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검은색 종이의 인간형상은 그 색깔만으로도 쉽게 흑인을 연상하게 하며 그것은 피부색으로 인격을 판단하고 정형화한 식민주의시대의 전략에서 비롯 된 것이다. 워커는 흑인과 백인모두를 검은 실루엣에 담아 관객이 피부색갈로 그 캐릭터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을 경계하고 오로지 그녀가 연출한 상황 속 인물들의 행위와 그 속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집중하게 한 것이다.

인체의 실루엣이 가지고 있는 고독한 이미지 즉 현재 자아의 본질적인 모습을

13) 앞의 책, p.21

14) 앞의 책, p.398

강조하기 위해 세부적인 묘사를 없애고 그 형태만을 남겨두어 단순하게 표현했다. 그 것은 본인이 타자와의 관계에서 얻은 갈등과 불안한 심리상태를 본인의 자화상 실루엣으로 표현하여 감정에 집중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작품3],[작품9]같이 선묘를 통해 면을 남겨두는 것이다. [작품3]는 동판화를 찍을 때 친콜레(chine colle)¹⁵⁾기법을 이용하여 인체 외의 이미지와 색상의 차이를 주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작품9]와 같이 드라이포인트(dry point)¹⁶⁾기법으로 만든 판을 안피지(雁皮紙)라는 얇은 한지에 찍어내고 그 이미지를 오려서 콜라주(collage)형식으로 표현하였다. 두 가지 모두 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면보다는 선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는 검은 덩어리를 이용한 실루엣 표현이다. [작품6]을 보면 선묘표현 없이 동판화의 아퀴틴트(Aquatint)¹⁷⁾와 소프트그라운드에칭(soft ground etching)¹⁸⁾기법을 이용해서 면 자체를 찍어내어 톤 변화가 있는 검은 그림자 처리를 했다. 이는 전체적인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방법이다.

전체적 형태만 보여 주고자 한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불완전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형태를 보여 줌으로서 욕망에 갈등하는 불안정한 심리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또한 인체에 결합 되어있는 선묘로 이루어진

15) 판 위에 한지를 증첩하여 동시에 찍어내는 기법.

16) 부식시키는 과정 없이 판면에 직접 예리하고 단단한 철 침으로 강하게 긁어 만드는 동판화 기법의 일종.

17) 동판화 기법의 일종으로 면의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기법. 판면에 송진이나 락카 스프레이 등으로 다공질의 지(地)를 만들고 부식을 반복하여 그라데이션을 만듦.

18) 그라운드를 만드는 조성(組成) 속에 수지(獸脂)를 첨가한 소프트 그라운드를 판면에 칠해 여러 가지 물질의 표면을 눌러 그들의 질감을 묘사하는 기법.

날개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

2) 욕망의 표현을 위한 선묘

칸딘스키는 기하학적으로 생각할 때 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며 이것은 점이 움직여 나간 흔적, 다시 말해 점이 만들어낸 소산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선은 점의 움직임에서 생겨난다.¹⁹⁾ 본인은 불완전한 인체에서 쏟아 나오는 욕망이 만들어낸 입자로 형성된 거짓 된 날개를 표현하기 위해 짧은 선을 사용하여 밀도 있는 이미지를 만들고자 했는데 욕망이 만들어낸 입자의 성장과 선의 본질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도식적인 직선들-일차적으로 수평선과 수직선-을 각각 그 색채적인 특성에서 관찰해 보면, 논리적인 결과로 흑색과 백색의 비교가 두드러진다. 이들 두 가지 색채가 침묵하고 있는 색채이듯이, 역시 방금 언급한 두 가지 직선들도 침묵하고 있는 선들이다. 여기저기서 나오는 울림은 최소한으로 감소되어 있다. ... '오늘날' 인간은 밖으로부터 과도한 요구를 받고 있다. 내적인 것은 인간에게선 죽어있다. 이것이 하강(下降, Abstieg)하는 마지막 단계, 즉 막다른 골목에서의 마지막 걸음이다. ... '현대적인' 인간은, 외부에 의해서 마비되어 감각이 무더지기 때문에 내적인 휴식을 찾게 되고, 이 휴식을 내적인 침묵 속에서 발견할 수

¹⁹⁾ Wassily Kandinsky, 『점.선.면: 회화적인 요소의 분석을 위하여』, 차봉희 (역), 서울: 열화당, 2000, p.47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의 경우 수평·수직적인 것에 대한 뚜렷한 경향이 나타난다. 여기서 생겨나는 논리적인 결과란 흑색·백색에만 치중하는 경향일 것이며, 이 방향으로 이미 회화는 여러 차례 시도를 해 왔다.²⁰⁾

위에서 언급한 칸딘스키의 의견과 같이 본인의 작품에서 짧은 선을 이용한 날카로운 선 표현은 우연히 아니며 인간의 갈등하는 내면의 모습을 표현하기에 필연적인 요소인 것이다. 욕망의 소산인 거짓 된 날개가 중첩된 선으로 만들어진 밀도 있는 면으로 표현 될 때 보는 이들로 하여금 날카롭고 어색하여 날 수 없을 것 같은 날개로 보여지기를 기대한 것이다.

날렵하면서 깊이 있는 선을 만들기 위해 동판화의 에칭(etching)²¹⁾기법을 이용하여 표현했다. 칸딘스키도 재료에 단단하게 새겨져 있는 선, 특히 아주 가느다란 선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금 까지 주어진 기법들 중에서도 특히 동판화가 가장 정확하게 해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²²⁾ 에칭기법을 통해 만들어진 짧은 선들이 모여서 중첩된 밀도 있는 선묘 표현은 비극적 요소인 날개표현에 있어서 극적인 효과를 더해 줄거라 기대한다. 또한 선묘가 판위에 중첩되듯 인간의 불안과 고통이 내면에 중첩되어 쌓이는 것을 의미한다.

인체 표현은 날개 표현과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밀하고 밀도 있는 표현이 아닌 윤곽선이다. 르네위그는 윤곽선에 대해 다음과

20) 앞의 책, pp.52-54

21) 판면에 하드그라운드를 얇게 덮고 바늘로 도형을 그려서 판면의 금속을 노출시킨 다음 부식액에 담귀 부식시키는 방법.

22) 앞의 책, p.103

같이 언급하였다.

화가가 그 물체들을 마음속으로 분별하고 서로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듯이, 그는 또한 윤곽으로 그 물체를 금 그어 놓음으로써 개개의 물체의 독자성을 시각적으로 밝히고 재구성하게 된다. 소묘의 윤곽선은 형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한다. ... 테고 필 고티에의 말을 빌자면, 윤곽선은 추상이며 순전히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것이다.²³⁾

인체를 본연이 가지고 있는 사실적인 형태 묘사가 아닌 윤곽선으로 신체의 일부가 없는 온전하지 않는 형태로 재창조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불안정한 인간의 모습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이는 형태가 가지고 있는 모습 자체를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윤곽선의 밖으로 뻗은 짧은 선묘는 윤곽선의 연장이다. 즉 내면의 불안한 감정이 밖으로 형상화 된 날개이자 육체의 연장인 날개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3) 가변적 구성

본인의 다른 작품과 달리 춤 시리즈는 가변적 구성이 특징적이다. 작품에서 보여지는 가변적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춤추는 인간

²³⁾ 르네위그, 『예술과 영혼: 미술, 그 표현기법의 역사』, 김화영(역), 서울: 열화당, 1986, pp.46-47

이미지 자체에서의 가변적 구성이다. 춤 시리즈는 판화의 에디션을 만들어 내는 개념의 판화의 복수성과 다르게 판화의 확장적인 개념으로 복수성(複數性) 그 자체를 이용한 작품이다. [작품9]와 같이 억지로 추는 춤, 어색한 동작을 표현함으로써 억압된 자아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인체의 이미지를 각 부분으로 나누어 재조합하였다. 여러 명의 인체를 만들 때 동일한 한 판만을 이용하여 복수제작 된 판화를 오려서 풀라주 함으로서 평면 안에서 여러 명의 인위적으로 어색한 동작을 만들어 내었다. 판에 새겨진 이미지는 앞면 혹은 뒷면의 누드를 구체관절인형처럼 나누어 그린 것을 드라이 포인트 기법으로 만든 것이다. 이 이미지는 본래 가지고 있는 자세가 기본 바탕이었기 때문에 다시 재조합 했을 때 어색한 동작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같은 동작을 하고 있는 이미지로 나열 되어 있지만 붙이는 과정에서 동작이 조금씩 달라진다. 인체를 재조합하는 과정에서 반투명한 얇은 한지는 종이 위에 붙여질 때 불투명한 이미지가 되며 한지와 한지가 겹쳐지는 부분에서도 투명도의 차이를 보임으로 본래 가지고 있던 한지로 된 인체이미지는 형태의 변화 뿐만 아니라 투명도도 변한다. 결국 하나의 이미지를 찍어서 같은 동작을 만들어 낸 것이지만 동작과 투명도가 다른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만들고 나열 된 이미지는 인체 그 자체가 아닌 억압된 몸짓의 비유적 기호이자 외부의 힘에 의해 변화되는 인간의 상징으로 보여지게 된다.

두 번째는 설치작업의 개념으로 가변적 구성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만들어진 누드 이미지를 [작품13],[작품14]와 같이 평면에서 벗어나 공간으로 확장해서 화면에 고정되어 있는 춤이 아닌 율동감 있는 춤으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누드 이미지는 안피지라는 얇은 한지에 찍어낸 이미지다. 이 한지는 우리가 흔히 보는 도화지나 인쇄용지와는 다르게 두께가 얇아서 움직임이 크다. 같은 힘을 가했을 때 다른 종이들은 앞뒤로 살짝

움직이는 것 전부이지만 이 한지는 사지의 흔들림이 비교적 자유롭다. 또한 이렇게 얇은 한지로 인체를 만든 것은 자아가 연약한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다. 누드 이미지들을 평면에서 공간으로 나와 전시장 안에서 공기의 흐름-바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흐름-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흔들거리는데 이 모습을 통해 전시장 안에서 이미지들이 춤을 추는 것 처럼 보이고 전시장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게 연출 한 것이다. 또한 누드이미지가 위태롭게 데롱데롱 매달려 있는 모습과 빛을 만났을 때 발생하는 아른한 그림자를 통해 관람객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불안한 감성의 춤을 표현하고자 했다. 관람객이 전시장 안에서 누드이미지 앞을 지나가거나 다가오고 멀어짐에 따라 공기의 흐름이 바뀌고 그 흐름에 매달린 누드이미지의 움직임이 바뀐다. 관람객이 타자가 되어 본인의 내면의 형상인 누드 이미지를 움직이게 함으로써 타자에 의해 흔들리는 자아를 상징하는 것이다. 줄 아래 매달려 있는 누드 이미지는 서로 밀집되거나 떨어져 있으면서 레이어를 만든다. 이러한 구성에서 누드이미지는 빛을 만났을 때 움직임에 따라 서로에게 다른 그림자를 주고 바닥에 생기는 그림자의 모양과 명도 차이를 준다. 또한 반투명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누드의 형태가 살짝 비추어져 앞의 누드의 윤곽선 외의 내부에 다른 선들이 생기고 뒤로 넘겨진 팔과 다리가 앞으로 비추어져 새로운 형태를 만든다. 즉 누드 이미지는 움직임에 따라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영향을 주고 받는다. 누드이미지 자체가 하나의 자아이자 타자가 되어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다.

3. 작품분석

1) 자화상. 56.5x44cm. 동판화. 2012. [작품1]

자화상. 56.5x44cm. 동판화. 2012. [작품2]

그 당시 본인의 혼란스럽고 불안한 심리적 상황을 표현한 작품이다. 머리 속에서 자라난 갈등과 타자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짧은 직선으로 이루어진 입자들의 형태로 형상화하여 점점 얼굴을 덮어 눈과 귀 그리고 더 나아가 입까지 막아버리는 상황을 그린 것이다. 얼굴을 덮은 입자들의 형태는 꽃 봉우리와 같은 형태로 갈등의 시작과 앞으로 갈등이 더욱 자라나 커질 것을 암시하고자 했다. 그림이란 그리는 사람의 심성과 그가 살아온 삶의 환경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미술을 통해 사람을 그리고 사람을 통해 미술을 본다는 것이다.²⁴⁾ 본인이 자화상으로 작업을 시작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다. 여기서 나오는 갈등과 불안한 심리의 상징인 입자들이 뒤에 설명할 작품들에서 날개의 형태로 보여진다.

2) Wings. 81.5x59.5cm. 동판화, 친필레. 2012. [작품3]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을 쫓는 일이 나에게 자유로운 날개가 되어 줄거라 생각하지만 본질적으로 타자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욕망이기 때문에 이 것은 오히려 중압감을 만들었고 결국 이뤄낸다 해도 욕망은 해소 되지 않고 심신이

²⁴⁾ 김광명, 『인간의 삶과 예술』, 서울: 학연문화사, 2010, p.166

자유롭지 못함을 표현한 것이다.

작품에서 날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유의 상징이 아닌 날 수 없는 거짓된 날개로 비극의 상징인 것이다. 날개를 달았지만 역동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특별한 동작 없이 정면으로 서 있는 누드로 수동적이고 정적인 표현을 하고자 한 것이다. 인체 뒤에 있는 꽃 이미지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능과 타자의 시선 사이에서의 갈등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예술작품과 정신분석이라는 책의 저자는 '색'은 각 형상 속에 녹아 있는 '감정'의 표현이다. 파랑은 상실·우울·재생·회복을 상징하고 색채들은 주관적 정서표현이라 언급한 바 있다.²⁵⁾ 이 작품에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채도가 낮은 푸른 배경은 우울한 감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 된 것이다. 또한 나무합판을 이용하여 매끄럽지 않고 약간 거친 질감을 만들었으며 푸른색에 채도변화를 주어 몽환적인 느낌을 주고자 했다. 이는 현실 세계가 아닌 상상의 공간으로서 실제로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닌 생각으로 나타나는 갈등과 불안한 심리적 공간을 연출하고자 한 것이다.

3) Wings. 81.5x59.5cm. 동판화, 친필레. 2012. [작품4]

Wings. 81.5x59.5cm. 동판화, 친필레. 2012. [작품5]

[작품3]의 연작으로 날개에 더 비중을 두어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4]는 날개를 가졌지만 이성을 상징하는 머리와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팔이 없어지고 점점 다리가 썩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작품5]는 날고 있는

²⁵⁾ 이창재, 장예숙, 서윤희, 김보영, 박한숙, 이영향 등, 『예술작품과 정신분석』, 서울: 학지사, 2010, p.31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적 갈등으로 사지가 다 절단된 모습이다. 진정한 자유가 아닌 타자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한 이끌림을 표현한 것이다.

4) Midnight. 75x70cm. 동판화, 드라이포인트. 2012. [작품6]

Midnight. 75x70cm. 동판화, 드라이포인트. 2012. [작품7]

Midnight. 75x70cm. 동판화, 드라이포인트. 2012. [작품8]

사람이 인생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 시간이 언제 인가를 생각해보았다. 본인은 사방이 어두운 캄캄한 밤에 고민이 많을 때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그 고민에 사로잡혀 밤을 지낸다. 이 작품은 이러한 상황을 표현할 것으로 고민은 결국 사회에서 타자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에 관한 갈등인 것이다. 갈등하는 동안 등에서는 욕망이 만든 불안감과 공포의 상징인 날개가 돌아나오고 나를 다른 길로 이끌어줄 진짜 육체이자 자아를 상징하는 다리는 점차 사라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5) dance to music. 70x100cm. 동판화, 드라이포인트, 풀라주. 2012. [작품9]

dance to music. 70x100cm. 동판화, 드라이포인트, 풀라주. 2012. [작품10]

드라이포인트 기법으로 만들어낸 인체를 복수 제작하여 평면에 붙여낸 이 작품은 사람이 춤을 추는 모습을 형상화 한 것이다. 누드를 본래 가지고 있던 동작이 아닌 다른 동작으로 재조합 한 것이기 때문에 어색한 동작이 만들어졌다. 이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타인이 원하는 삶을 내가 원하는 삶처럼 사는

인간이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내적 갈등으로 인해 불편하다. 이러한 삶을 춤에 비유하여 어색한 동작으로 표현해 낸 것이다. 붙이는 과정에서 미세하게 다른 동작들은 그 것을 쫓는 이들의 조금은 다른 삶과 차이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배경의 추상적인 이미지들은 동판화를 오랜 시간 부식시켜 얻어낸 이미지들로 음악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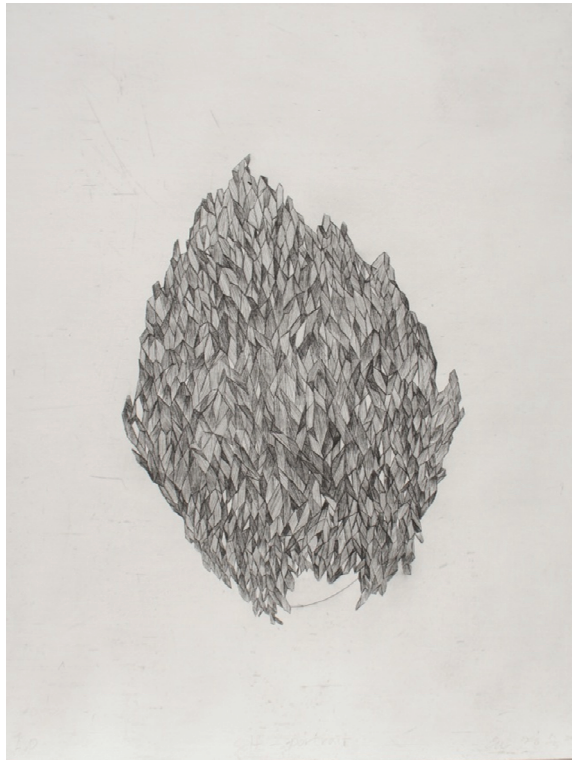
6) dance to music. 41x100cm. 드라이포인트, 풀라주. 2012. [작품11]

dance to music. 41x100cm. 드라이포인트, 풀라주. 2012. [작품12]

[작품9],[작품10]과 같은 내용의 작품들이다. 화면 구성에 있어서 춤추는 이미지 외의 다른 이미지들을 없애고 배경을 좁게 함으로 이미지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제작한 것이다.

[작품10]은 우울하고 차가운 감성을 강조하기 위해 푸른색 계열의 잉크로 찍은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다.

작 품 사 진



[작품1] 자화상. 56.5x44cm. 동판화. 2012.



[작품2] 자화상. 56.5x44cm. 동판화. 2012.



[작품3] Wings. 81.5x59.5cm. 동판화,친콜레. 2012.



[작품4] Wings. 81.5x59.5cm. 동판화,친콜레. 2012.



[작품5] Wings. 81.5x59.5cm. 동판화,친콜레. 2012.



[작품6] Midnight. 75x70cm. 동판화,드라이포인트. 2012.



[작품7] Midnight. 75x70cm. 동판화,드라이포인트.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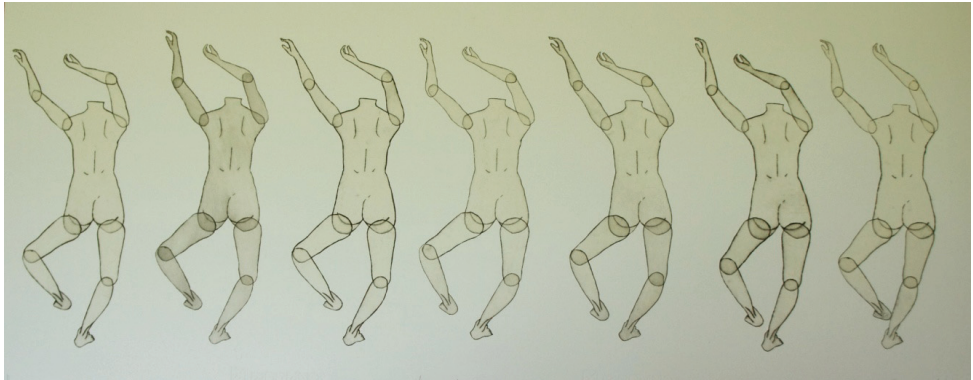
[작품8] Midnight. 75x70cm. 동판화,드라이포인트.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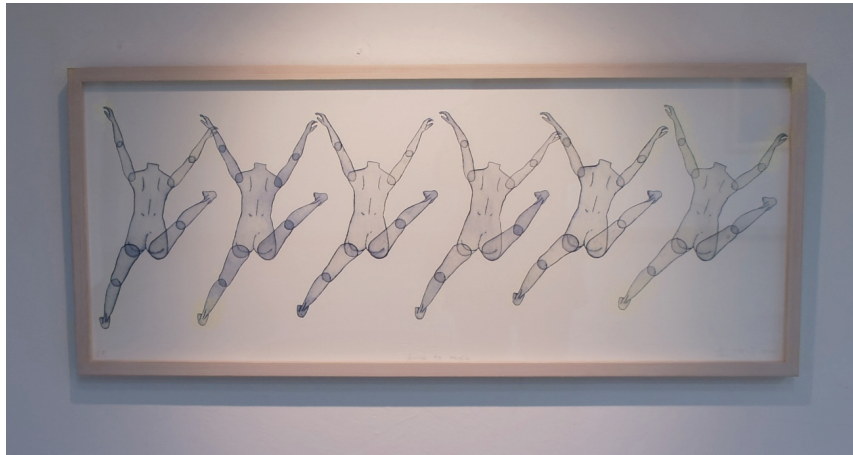
[작품9] dance to music. 70x100cm. 동판화,드라이포인트,폴라주. 2012.



[작품10] dance to music. 70x100cm. 동판화,드라이포인트,폴라주.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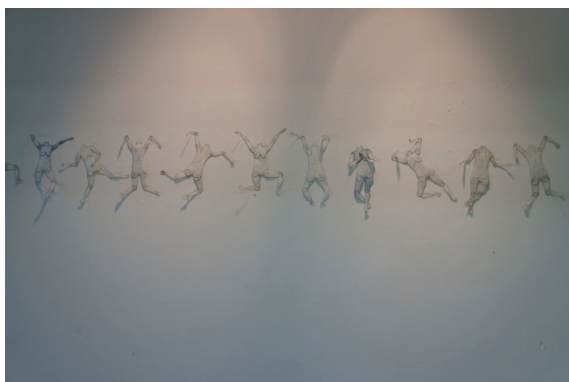
[작품11] dance to music. 41x100cm. 드라이포인트, 폴라주. 2012.



[작품12] dance to music. 41x100cm. 드라이포인트, 폴라주. 2012.



[작품13] <춤> 설치 장면



[작품14] <춤> 설치 장면

III. 결 론

본고는 석사학위청구전을 바탕으로 하여 본인의 작품세계를 설명하고 전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전시된 작품들은 크게 내용적 측면과 조형적 측면으로 나누어 인간의 욕망과 타자와의 관계를 주제로 한 본인의 작품들을 분석해 보았다.

먼저 작업의 동기가 된 본인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정체성의 혼란과 심리적 불안감의 원인을 파악해 보았다. 인간은 현실의 삶에 안주하기 보다 늘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타자의 삶과 끊임없이 비교한다. 타자의 평가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느낌을 확신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며 우리가 혼자가 아닌 사회 속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이다. 타자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타자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기준이 자신의 욕망이 된다. 하지만 그 욕망이 이뤄진다 해도 완벽히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유발한다. 그리고 그 갈등은 자아 정체성의 혼란과 불안감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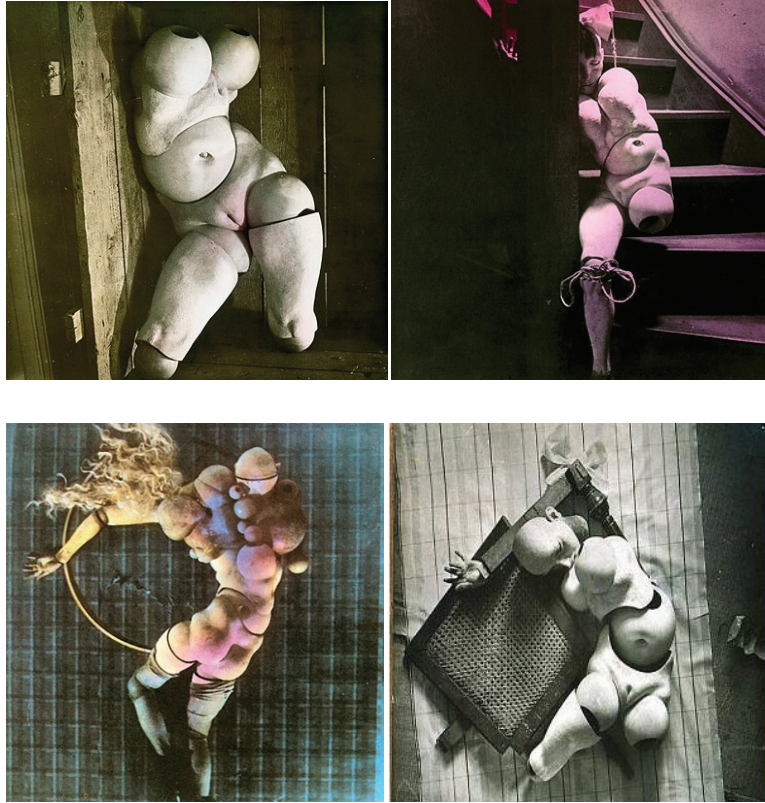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표현하는 소재로 분절된 신체가 사용되었다. 인간의 몸은 비유적 기호로 본인의 자화상이기도 한 신체를 자르고 재 조합함으로 욕망으로 인해 자아가 상실되는 것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상징하였다.

당시 본인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됐다. 첫째로 날지 못하는 인간이 날고자 하는 욕심을 바탕으로 한 헛된 소망에 대한 비극의 상징인 날개이미지 이다. 자화상을 그리면서 본인의 욕망을 상징하는 매개체로 생겨난 선으로 된 입자를 날개 형태로 만들고 이를 불완전한 신체와 결합해 날 수 없는 날개를 단 억압된 자아를 표현했다. 비극적 요소인

날개표현을 위해 중첩되고 밀도 있는 짧은 직선을 이용하였다. 두 번째로 인생을 춤에 비유하여 정면의 인체를 인위적으로 동작을 만들어내어 어색한 동작을 표현하여 억압되고 불안정한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색한 춤을 표현한 작품은 가변적 구성이 특징이다. 판화의 복수성을 이용해 정면의 인체 이미지를 여러 가지 동작으로 만들어 구성했으며 평면에 이어 설치작업으로 확장해서 표현하여 공기 중에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 춤추는 모습을 부각시켰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여성의 인체는 본인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는 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불안정한 심리의 인간의 모습에 집중하기 위해 인체를 본연이 가지고 있는 사실적인 세부 묘사가 아닌 윤곽선으로 이미지가 주는 전체적 형태에 집중했다. 신체의 일부가 없는 온전하지 않는 형태로 재창조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불안정한 인간의 모습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냈다.

예술은 작가에게 내면표출의 장이자 조형적 양식의 특성을 말해주는 기능을 하며 더 나아가 한 시대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매체이다. 지금까지 본인의 작품은 본인의 자아를 표현하기 위한 개인적인 욕구로 시작되었다. 이번 석사청구전의 작품들도 주체를 잃은 정체성과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한 치유적 욕구에서 비롯 된 것이며 지극히 개인적인 욕구에서 시작된 것이다. 앞으로 하게 될 작업들도 개인적인 사연과 감정들이 동기로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연과 감정들은 이 시대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타자와 내가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생각들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르의 예술처럼 사소하고 개인적인 이야기와 감정들도 타인으로 하여금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참 고 도 판



[도판1] 한스 벨머, 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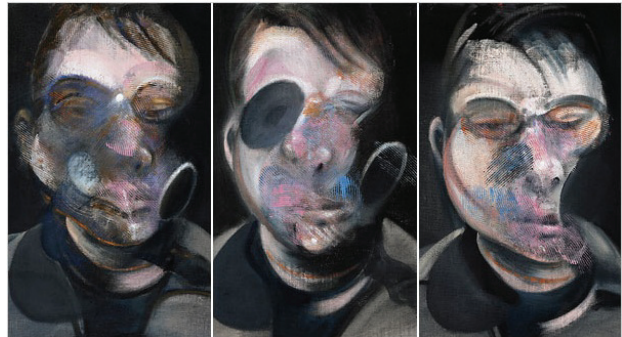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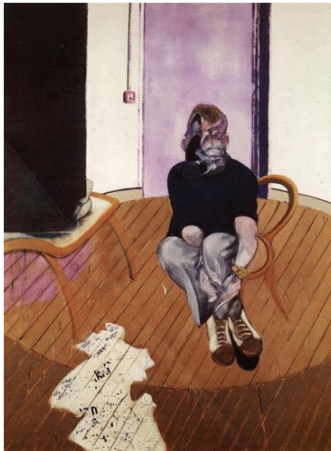
[도판2] 앙리 마티스, 이카루스



[도판3] 피터 브뤼겔, 추락하는 이카루스가 있는 풍경



[도판4] 레베카 호른, 깃털 달린 감옥 부채



[도판5] 프란시스 베이컨, 자화상



[도판6] 앙리 마티스, 춤



[도판7] 카라 워커, 어두운 도시의 폭동

참 고 문 헌

- 김광명. (2010). 인간의 삶과 예술. 서울: 학연문화사.
- 김정현. (1995). 니체의 몸 철학. 서울: 지성의 샘.
- 르네위그. (1986). 예술과 영혼: 미술, 그 표현기법의 역사. 김화영(역). 서울: 열화당.
- 린드버그, A.M. (1976). 바다의 선물. 신상웅(역). 서울: 범우사.
- 알랭 드 보통. (2005). 불안. 정영목(역). 서울: 이레.
- 쇼펜하우어, A. (1987). 쇼펜하우어 인생론. 사순옥(역). 서울: 홍신문화사.
- 이창재, 장예숙, 서윤희, 김보영, 박한숙, 이영향 등. (2010). 예술작품과 정신분석. 서울: 학지사.
- 자크 라캉. (2008). 자크 라캉 세미나 11권 -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 개념. 맹정현, 이수련(역). 서울: 새물결.
- 조선미. (1995). 화가와 자화상. 서울: 예경.
- 칸딘스키, W. (2000). 점.선.면: 회화적인 요소의 분석을 위하여. 차봉희(역) 서울: 열화당.
- 케네스 클라크. (2002). 누드의 미술사: 이상적인 형태에 대한 연구. 이재호(역) 서울: 열화당.
- 페터 비트머. (1998). 욕망의 전복: 자크 라캉 또는 제2의 정신분석학 혁명. 홍준기, 이승미(역). 서울: 도서출판 한울.
- 할 포스터. (2005). 욕망, 죽음 그리고 아름다움. 전영백, 현대미술 연구팀(역). 서울: 아트북스.

ABSTRACT

Study on self-portrait reflecting internal conflicts from segmented ego primarily based on author's art works

Yoon, Kyung sook

(Supervisor Park, Young geun)

Dept. of printmak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is intended to analyze and explained theoretical contents and their expressions for art works focused on human desires and relations with others from private exhibition which was held from April 4 to April 10, 2012. As my art works contemplate the identity of ego through desires generated from relations with others and its internal conflicts, they deploy personal psychological situations generated by environments including me and others. As my first art work is enlightenment acquired a very personal experience and it is deployed by this enlightenment, i will discuss my art work first by clarifying the motivation of my art works. Art is expression of our life and it is said that we are able to peep at a person's life from art and further able to know the era at that time. Therefore a very personal emotion expressed in popular

songs, novels and movies is able to extract sympathy from others. In modern society, we establish relations with others by various methods and interact with them. I intended to relieve conflicts and psychological anxieties generated from relations between me and others by my art works. Especially anxieties from disruption of male friend and family have become a motivation for my art work. Since we have influence upon others in society as a social member not alone, we believe our identity being evaluated by others. I expressed by painting for suppressed and anxious psychological states generated by conflicts and confused identity arising from desires to be approved by others and efforts to accept other's opinions as mine. This is believed to be the very my self-portrait.

Although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artists draw their self-portraits, they are believed be art works to reflect their identities and place to express their sense of identities as to how they recognize themselves. Although human bodies without faces which are common in my art works are intended to express pure images of unspecific humans, I intended to expose suppressed egos by cutting or hiding human bodies as a symbol of ego. I figured confused identity and segmented ego arising from desires and conflicts generated by others as segmented nude images.

My art works are intended to show ego which is conflicting and anxious combined with body using wings and dancing images as a

medium symbolizing the results of desires generated by other's views in modern life. I generated particles appeared when I first drew self-portrait by shape of wings, and then expressed a suppressed ego produced by false desires by combining it with imperfect bodies. Wings are parts of human body and extensions of human body such as hairs and nails.

False wings expressed more and more increasing anxieties and conflicts inside through an image in which wings are sprouted in body. In addition, dance, symbolized for life, expressed a suppressed ego in a way that cuts human body in front side just like sphere-shaped articular doll and re-assemble it and then generate artificially generated and awkward dancing. These are expressions arising from fear and dread which is given by confused identity as mentioned earlier. My art works are coming from healing desires to be relieved by expressing my psychological states. I intended to address causes of confused ego and clarify identity by expressing anxieties and fears in myself as self-portraits.